

# 전쟁에서 드러난 추악한 인간본성



**김명훈**  
세브란스병원 사회사업팀장

올 봄의 회두는 미영 연합군의 이라크 침공과 SARS 공포일 것이다. 할애하고 있는 신문의 지면이나 TV 뉴스시간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큰 관심사는 이라크 전쟁일 것이다. 한편으로 보면 힘센 골목대장이 평소에 못

마땅하게 굴던 꼬마를 별 시답지 않은 이유를 달아서 흠씬 패주고 주머니에 있는 것까지 몽땅 빼앗아 가는 모습이어서 영 보기에 좋지 않다. 베르베르의 소설 '뇌'에서 사무엘 윈처에게 자기 전까지는 한번도 패한 적이 없다는 컴퓨터 답블루4의 체스 실력처럼 연합군의 전술은 물리적으로는 고도로 계산된 위치를 폭격하면서 심리적으로는 균중을 움직여 반대파의 세력이 반기를 들고 일어나 후세인을 제거하도록 자극하기도 하여 양동작전이 직소퍼즐을 맞춰가듯 시간이 지나면서 윤곽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마침 아프리카의 사막에서 사자 무리가 물소 한 마리를 어렵사리 눕히자 한 떼의 하이에나가 달려들어 사냥감을 채가려 하듯이 전쟁의 결판이 드러남에 따라 그 동안 안은 아예 뒷짐을 지고 구경이나 하고 있었거나 혹은 오히려 사냥을 못하게 방해하던 세력들이 꼬마를 때려눕히고 주머니에 가진 것을 다 꺼내 놓으니까 그것을 차지하려고 각축을 벌이는 모습이 참으로 꼴사나워 보인다.

그 동안 후세인을 중심으로 모두가 한 몸 한 생각인 것처럼 비취지던 모습과는 달리 오히려 연합군의 바그다드 입성을 환영하고 하루아침에 후세인을 추악한 독재자로 치부하며 비난하는 이라크 국민들의 모습도 우리의 눈에는 아이러니하기 그지없다. 통제의 중심을 잃

은 무질서 속에 약탈이 일상화된 모습을 보면서 이성을 모두 버리고 이기주의만이 난무하는 전쟁의 끝으로 가는 이라크의 사회상을 보면서 모파상의 소설 '비계덩어리'가 떠오른다.

보불전쟁에서 패배한 루앙시의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 고향을 떠나면서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통성명도 나누지 못한 채로 마차를 타고 가다가 안개와 세찬 눈발 그리고 추위 때문에 더 이상 마차가 달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비계덩어리'라는 별칭을 가진 색기 가득한 창녀가 나서서 고기와 포도주를 나누며 분위기를 일신하여 모든 동료들이 추위와 공포를 잊고 새날을 맞아 계속 길을 가게 된다. 이들이 지나는 길목에서 교전이 벌어질 상황에 이르자 길목마다 초병들의 경계는 삼엄해지고, 한 프러시아 장교가 이들의 통과 조건으로 '비계덩어리'와 잠자리를 요구하면서, 자유를 찾아 동행하는 루앙시의 시민들 사이에 이기심으로 인한 추악한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 프러시아 장교의 청을 거절하자 '비계덩어리'를 더 이상은 자유를 찾아 함께 출발한 동료라기보다는 자신들의 가는 길을 막는 같이 동행할 자격이 없는 비천한 창녀로 치부한다. 마침내, 신은 순수한 목적에서 행한 죄악을 용서하리라는 수녀들의 단언에 떠밀려 '비계 덩어리'는 프러시아 장교를 찾아가게 되고 다음 날 아침 마차는 자유의 땅을 향해 다시 출발한다.

하이에나 떼처럼 사냥해놓은 먹이감을 차지하고자 각축을 벌이는 세력과 '비계덩어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추악한 인간의 모습에서 과거 역사책에서나 읽었음직한 세계사의 흐름을 이끄는 상수(constant)는 변함이 없음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고 인간본성에 대한 회의를 갖게 하여 뒷맛이 씁쓸하다.